선명상부터 박람회까지…4월 불교문화로 '평안' 전한다

국제선명상대회, 4월 3~5일 봉은사·봉은문화회관 일대서
마음처방전 등 41개 프로그램
4월 2~5일 코엑스 불교박람회
체험 콘텐츠로 '공 사상' 경험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4월 서울 도심이 불교문화로 물든다. 다양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명상대회부터 불교의 모든 것을 보고 느끼는 박람회까지 잇따라 열리면서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마음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 국제선명상대회'와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을 공개했다. 조계종은 선명상과 불교문화 콘텐츠를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4월 3일 봉은문화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까지 봉은사 일대에서 시민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이번 대회는 'AI 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대인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선명상의 역할과 의미를 모색한다.

성만제 조계종 미래본부 차장은 "올해 세 번째를 맞는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개최 지역과 프로그램이 확대된 만큼, 총 20만 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제선명상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상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막식에 이어 열리는 선명상 포럼에서는 AI 시대 인간의 정신건강 문제를 학술적·정책적으로 조망한다. 미래학 전공자 차지호 국회의원은 '명상 기반 공공의료 정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카이스트 명상과학연구소장 미산 스님은 뇌과학과 AI 융합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선명상의 과학적 실천 대안을 설명한다.

선명상축제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총 41개 프로그램에 약 4000명이 사전 신청해 대부분 개막 전 조기 마감됐다. 사전 예약을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접수와 상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조계종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26 국제선명상대회'와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의 세부 프로그램과 일정을 공개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의 간화선 법문, 사찰음식 명장 선재 스님의 '사찰음식 선명상', 주석 스님(명경문화재단 이사장)과 가수 박기영, 피아니스트 조윤성이 함께하는 '선명상 콘서트'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주한 외국 대사들을 초청해 봉은사 템플스테이 수월관에서 선명상 체험과 사찰음식 공양을 진행해 한국불교문화의 정수를 알릴 예정이다.

AI 기반 맞춤형 명상 프로그램 '마음처방전'도 새롭게 선보인다. 참가자의 고민과 마음 상태를 24가지 유형으로 분석해 개인에게 적합한 명상 방법과 차, 향, 화두 문구 등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특히 명상 전문가로 구성된 앰배서더 35명이 프로그램을 직접 이끌며 축제의 완성도를 높인다. 어해용 암 치유 전문의, 이정은 요가 전문가, 킴제이 사운드배스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선명상축제는 서울을 시작으로 공주, 세종, 대구, 울산, 영덕, 부산, 영암, 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지역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통해 선명상을 일상 속 수행문화로 정착시킨다는 구상이다. 대회는 11월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국제컨퍼런스와 폐막식에서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며 마무리된다.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은 "명상은 자신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하며, 이는 곧 불교 수행의 시작과도 맞닿아 있다"며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힙한 불교' 열풍을 이어갈 **'2026 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서울 강남 코엑스 B홀에서 열린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이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불교 핵심 사상인 '공(空) 사상'을 놀이처럼 체험하며 '참여하고 완성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 프로그램인 '공 뽑기'는 입장 시 지급되는 코인으로 관람객이 직접 공을 뽑는 체험이다. 공 안에는 스님과의 대화 기회, 진언 수행문, 스님·연예인·체육계 인사·인플루언서의 사인공 등이 담겨 있다. 일부 '빈 공'은 관람객이 자신의 서원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코인은 박람회 내 구매 영수증이나 선명상 프로그램 참여, SNS 이벤트 등을 통해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봉은사 일주문에서는 반야심경을 힙합과 DJ 공연 등으로 재해석한 '공 파티'도 열린다. 가수 우원재와 DJ 소다 등이 참여해 공 사상을 현대적인 음악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박람회는 불교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창작자와 브랜드를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도 확충했다. 양경수 작가와 최인영 수의사가 협업한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 '견심사'를 비롯해 향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인센스 브랜드 '취 프로젝트', '붓다랜드', '해탈네컷' 등 다양한 브랜드가 소개된다.

특히 올해는 신진 창작자를 위한 '크리에이터 굿즈전'과 '전통불교문화 신상품 공보전'이 신설돼 박람회 참가 업체와 지역사찰의 연계방안도 모색한다.

박람회는 총 435개 부스 규모로 운영되며, 사전등록 및 할인 예매는 5만 5000명을 넘어선 상태다. 올해 예상 관람객은 약 25만 명이다.

조계종 문화부장 성원 스님은 "불교박람회를 통해 불교문화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높여 국민의 내면의 평화를 증진하고, 사회가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전통문화가 산업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박람회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우회 입법일 뿐" 불교계, 세계청년대회 지원법 반발

종교편향특위, 3월 20일 간담회
국제행사지원법 "형식만 바꿨다"
범종교시민연대 협력 방안 강구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보화 스님, 이하 종교편향특위)가 2027년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둘러싼 입법 현황과 관련 문제점을 공유하고 범불교적 대응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종교편향특위는 3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계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7 천주교 세계청년대회 관련 종교편향 대응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쟁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임오경 의원이 2025년 11월 7일 대표발의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해당 법안은 종교를 특정하지 않고 국제행사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사실상 세계청년대회 지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원장 보화 스님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법안의 형식이 바뀌었을 뿐 행정·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기존 특별법이 반발에 부딪히자 이를 우회하기 위한 입법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일문 스님도 "한 종교의 신앙 행사에 과도한 공적 지원은 사회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며 "법안 명칭만 변경됐을 뿐,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 역시 특정 종교 지원 법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천주교 측에서는 100만 명의 청년이 우리나라를 찾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치"라며 "지리적 여건상 대부분 항공 이동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해당 규모의 인원이 실제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입법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연대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범종교시민연대 등과 협력해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해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종교편향특위는 전주시의 공공영역 내 특정 종교 편향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며 '전주시는 반복적인 종교 편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시정하라' 제하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종교편향특위에 따르면 전주시는 관광 홍보물과 대중교통 안내판 등 공공 매체에 성당, 예수상 등 특정 종교 상징물을 노출하고 크리스마스 조형물을 장기간 설치하며 특정 종교 홍보를 이어왔다.

종교편향특위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들의 종교편향적 행정 즉각 중단 △공식 사과 △모든 종교를 균형 있게 존중하는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종교편향특위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와 협의해 전주시청 항의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탄자니아 보리가람서 첫 출가자 나온다

3학년 지미 존 씨 백양사서 행자
진우 스님 상좌로 3월 25일 예방
"스님 돼 이웃 돕고 싶다" 서원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에서 첫 출가 희망자가 나왔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상좌가 된 아프리카 출신 지미 존 씨는 곧 백양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진우 스님은 3월 25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행자생활을 앞둔 지미 존 씨의 예방을 받았다.〈사진〉 진우 스님은 그의 결심을 격려하며 수행자로서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길 당부했다.

지미 존 씨는 2023년 9월 원예과에 입학, 3학년 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내에서 선명상반 운영을 돕고 새벽예불에 꾸준히 참석했으며, 염불과 목탁 습의를 익히는 등 수행자의 기본을 다져왔다. 지미 존 씨는 "스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

지미 존 씨는 진우 스님에 "부처님 가르침을 더 깊이 배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며 "늘 배우고 수행하는 스님이 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임은호 기자

談論大法會
세계 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봉은사 담선대법회
일곱선사 한국선을 설하다
불기2570(2026) 4.13(월)~19(일) 오후 2시, 봉은사 법왕루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전국선원수좌회
주관 봉은사 BONG EUN SA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4.13(월) 음2.26 석종사 조실 금아 혜국대선사
4.14(화) 음2.27 대흥사 동국선원 유나 남명 정찬대선사
4.15(수) 음2.28 축서사 조실 금곡 무여대선사
4.16(목) 음2.29 백양사 수좌 월송 일수대선사
4.17(금) 음3.1 범어사 선덕 금산 지환대선사
4.18(토) 음3.2 전국선원수좌회 상임대표 금모 불산대선사
4.19(일) 음3.3 백담사 기본선원 조실 봉정 영진대선사
고려시대 담선법회를 계승한 일곱선사 한국선의 향연
※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02-2011-1692~3